

바이탈 싸인

DRAM 주도권 위협받는 한국 업체들

한국의 DRAM 업체들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외국 경쟁업체들에게 유닛 생산의 선두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장조사회사인 iSuppli의 Derek Lidow CEO는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브랜드 주도권을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대만/중국 생산분의 상당량은 자가 상표 부착식으로,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Lidow CEO는 “전략적 제조 위치로서 한국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 투자하려는 대만 및 중국 업체들이 한국 메모리 업체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조 및 투자 기반은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이 더 우수한 기술 및 경영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본 집약적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시장은 매우 치열하다. “DRAM 시장은 생산 용량을 늘림으로써 성장해왔는데, 이 때문에 DRAM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추어야 했다. 현재 많은 업체들에서 가격이 현금 생산 비용보다 낮다. 연간 DRAM 매출 성장률은 지난 3월 최고를 기록했으며, 현재의 둔화세가 2008년 3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Lidow CEO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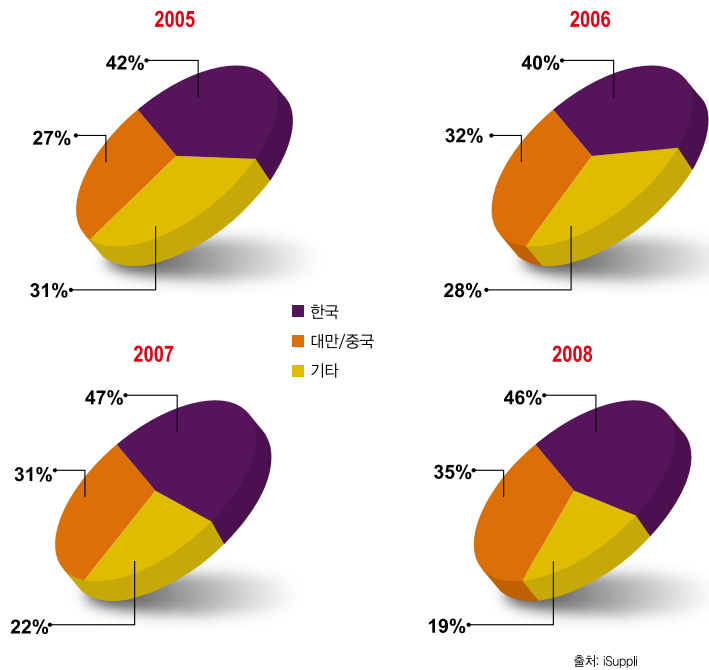
한국의 DRAM 업체들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상위 DRAM 메이커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2006년 전세계 매출의 45퍼센트를 차지했으며, 대만/중국 업체들은 17퍼센트를 차지했다.



생산량 증가로 지역 격차 감소

Lidow 사장은 2007년에 한국 업체들이 전체 DRAM 생산량의 47퍼센트, 대만/중국 업체들이 31퍼센트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22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DRAM 매출은 2010년에는 457억 달러로 증가함으로써 2006년도의 339억 달러와 비교해 35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대만/중국 업체들이 DRAM 생산량을 4퍼센트 포인트 늘어난 35퍼센트로 높이고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46퍼센트로 감소함으로써 2008년부터는 그러한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DRAM 가격 붕괴는 한국 업체들에게 타격

“한국 업체들이 DRAM 생산 용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올해 메모리 가격 붕괴를 심하게 부추길 것이다. 이러한 가격 인하는 결국 한국 업체들의 내년도 DRAM 외형 성장을 감소시킬 것이다. 한편, 대만과 중국의 업체들은 자신들의 DRAM 생산 용량을 계속 늘려갈 것이며, 2010년에 이르면 생산 용량에 있어서 한국 업체들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Lidow CEO는 예측했다.

